

현대기아차 자율주행으로 미래 시장 선점 나서

'CES2018'서 자율주행기술 현황 공개...현대차-오로라 협업 기대감 UP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미래 자동차 시장의 핵심 기술로 자율주행을 낙점했다. 올해 참가한 'CES 2018'에서도 양사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현황을 공개하고, 시장 선점 의지를 드러냈다.

현대자동차는 차세대 수소차 넥소(NEXO) 공개와 함께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을 선보였다. 차세대 동력인 수소연료전지시스템과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 기술의 접목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현대차는 특히 미국 자율주행 전문기업 오로라와 함께 넥소를 활용한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다. 오로라는 자율주행 분야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각종 센서 및 제어기, 클라우드 시스템과 연결된 정보를 주고받는 백엔드 솔루션 등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오로라 소속 엔지니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구글의 자율주행 기술 총책임자였던 크리스업슨,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총괄을 맡았던 스티븐 앤더슨, 우버의 인식 기술 개발 담당이었던 데이브 그넬 등이 포함돼 있다.

현대차는 오로라와의 협업을 통해 2021년까지 레벨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레벨4는 대부분의 도로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차량 스스로 주행이 가능한 완전 자율주행 수준이다.

양업체 현대자동차 부회장은 CES 2018 기조연설에서 "현대차는 시류에 앞장서기 위해 지능형 안전 자율주행, 커넥티드 카, 친환경차 기술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아차는 올해 출시할 예정인 니로 전기차(EV) 선행 콘셉트를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이와 함께 2025년까지 출시할 친환경차 라인업을 현재 6종에서 하이브리드(HEV) 5종,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5종, 전기차(EV) 5종, 수소연료전지차(FCEV) 1종 등 총 16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3월에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380km에 달하는 니로 EV 양산 모델을 공개할 방침이다.

기아차는 SK텔레콤과의 협업을 통해 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자율주행차 체험 시나리오, 한국-미국 간 5G 망을 활용한 실시간 영상 전송 시연, 5G 기반 차량-사물 간 통신(V2X) 기술 등을 선보였다.

기아차는 내년 중 실도로에서 대규모의 자율주행 시범 운영을 실시, 자율주행 기술의 신

뢰성을 확보하고 양산성의 조기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어 2021년 스마트시티 내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 스스로 주행이 가능한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아차는 이와 함께 현재 일부 차종에 적용 중인 전방 충돌방지보조 기능을 2020년까지 모든 차종에 적용한다.

이진우 기아차 지능형안전기술센터장은 "믿을 수 있는 안전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의 차량 내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경계 없는 이동의 삶'을 지원하는 것이 최선의 가치"라며 "기아차는 앞으로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초연결 자율주행차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대용 기자 wee@

전력설비 예측진단·감시 분야 최신 기술·트렌드 조망

전기전자재료학회, 2월 6~7일 '전력설비...감시기술' 세미나

전력설비 예측진단·감시 분야의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조망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회장 장건외)와 한전 전력연구원은 다음달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대전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인제개발원에서 '전력설비 예측진단 및 감시기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산업계와 학계, 연구계 등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 발전기와 고압전동기, 변압기, 전기철도 등 다양한 전기·전력설비의 예측진단과 정비 기법, 기술 현황, 사례 등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다.

특히 산업발전이 활발하던 1980년대에 설치된 전력기기의 상태가 노후화되고 고장의 빈도가 잦아지면서, 전력설비에 대한 감시·예측진단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기술을 확대 보급하고 기술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강연도 이어진다.

구체적으로 첫날에는 진병훈 사회인

터내소남 대표가 고압회전기 운전 중 부분방전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며, 전력기기 건전성 진단 및 평가기법(홍국환 DKSH 상무), 발전기 및 고압전동기 권선교체 사례(김희동 전력연구원 처장), 고압회전기 권선 제작방법(임채웅 에스엔 대표) 등에 대한 강연이 진행된다.

둘째날에는 고압유도전동기 회전자 진단사례(채지석 수자원공사 차장), 전기설비 진단 모니터링에 의한 절연 신뢰성 평가 및 자산관리(장용무 원광대 교수), 전력설비 열화진단 장치 개발사례(박태성 전력연구원 부장), 전력케이블 수트리 발생과 진단기법(임장섭 목포해양대 교수), 변압기 진단기술(하늘 신화인터내셔널 대리)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세미나 참가 접수는 2월 2일까지 전기전자재료학회(02-538-7958, web-master@kieem.or.kr)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김병일 기자

중소 정책자금 지원졸업제 도입

기획재정부, 25억원 한도

정부가 재정지출의 질적 구조조정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졸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에 한도를 둬으로써 특정기업에 편중·중복지원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여기에는 ▲혁신성장 ▲복지·고용안정 ▲저출산 ▲재정운용 효율성 등 4개 분야에서 33개 과제와 세부 추진방안이 담겼다.

혁신성장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졸업제 도입이 눈에 띈다. 현재의 정책자금 지원이 특정 기업에 편중돼 있고, 신규기업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는 특정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자금 한도를 25억원으로 설정했다. 누적 지원금액이 25억원을 넘은 기업은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 R&D와 관련한 금액 한도가 아닌 횟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조정훈 기자 joh@

하면 배차간격에 맞춰 정상적인 버스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지난 1개월 동안 시행한 전기버스 시운전 결과 전기버스는 환경부의 '도로변 주거지역 낮 시간대의 소음 기준'인 65dB보다 적은 57~64dB가 나왔으며, 이는 기존 CNG버스에서 발생하는 소음인 74~82dB보다 상당히 적어 그간 CNG버스의 각종 소음으로 발생되는 각종 문제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료비는 기존 CNG충전 요금의 1/3 수준으로 전기버스 운행에 따른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는 올해 전기버스 5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위대용 기자



창원시, 경남 최초 전기버스 운행시작

1회 충전시 130km 주행가능, 왕복 58km 구간서 운행

창원시가 경상남도 최초로 전기버스를 노선에 투입했다.

창원시는 122번 노선에 전기버스 1대를 투입해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유원석 창원시 제2부시장, 마창여객, 전기버스 제조업체 임직원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산합포구 가포동 소재 마창여객 차고지에서 '전기버스 개통식'을 진행했다.

마창여객은 창원시 보조금을 받아 구매한 전기버스 1대를 마산합포구 월영동 월영아파트 정류장~상산구 대방동 회차장을 오가는 112번 노선에 투입했다.

환경부 선정 '전기차 선도도시'인 창원시는 2017년 12월 말 기준 570대의 전기차를 보급했다. 올해부터 시내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 전기버스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전기버스 시범 보급사업을 추진해 마창여객을 사업자로 선정했고 전기버스 1대를 보급한 후 다양한 시운전을 진행했다.

창원시 최초로 운행되는 전기버스는 월영

아파트 정류장과 대방동 회차장 간 왕복 58km를 운행하는 122번 노선에 투입되며, 1일 5회 운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운행되는 전기버스는 중국 하이거에서 제작된 차량으로 1회 충전 시 129.5km를 운행할 수 있다. 노선 운행 완료 후에는 운전기사가 마창여객 차고지에 들어와 휴식을 취하는 동안 차고지에 설치된 전기버스 전용 충전시설에서 충전할

더 커피니 / 새빛테크 /

첨단계측장비 전문유통...베트남 진출 타진

1월 중 현지 시장조사단 파견·전기안전공과도 긴밀 협력 추진



새빛테크(대표 최형준·사진)는 지난 2011년 설립된 계측장비 전문 유통기업이다.

전기 전자를 비롯해 기계, 광학, 환경, 화학, 안전 분야에서 프랑스와 영국, 미국, 독일 등 선진 7개국 29개 기업, 260여개 품목을 취급하고 있다.

2012년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 제품 측정 원리와 분석도 제공하고 있다.

새빛테크는 특히 올해부터 베트남 시장 진출을 타진할 방침이다.

최형준 대표는 "계측장비 시장도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면서 "그동안 현장에서 측정하던 패턴이 이제는 서서히 온라인 계측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154kV급 이상 초고압에선 순간정전이 심각한 피해를 불러오기 때문에 24시간 모니터링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대규모 석유화공단이나 전기철도 시장에서 수요가

꾸준하다. 또 "한전이 보유한 154kV 이상 변압기는 1만 2000대 이상으로 추정된다"면서 "올 하반기부터 변압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새빛테크는 영국 기업 CAMLIN의 변압기·발전기·회로차단기 모니터링 시스템

새빛테크는 베트남 시장진출을 위해 1월 중 현지 시장조사단을 파견할 방침이다. 이미 베트남 공직 출신의 석사급 인력도 확보해놓은 상태다.

최 대표는 "1억명에 육박하는 베트남 인구를 감안할 때 여전히 국내 기업이 진출할 공간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인적 네트워크와 품질, 가격, 납기 등을 경쟁



새빛테크가 공급하는 변압기 모니터링 시스템.

을 공급하고 있다. 초고압케이블도 마찬가지다. 케이블 고장탐지 장비는 오차도 크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광섬유를 케이블과 함께 병행 포설해 케이블의 온도 등을 상시 감시하는 추세다.

최 대표는 "한전선업체의 해외 수주 프로젝트에 광섬유 40만m 규모를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력 아시아 시장 진입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진출을 위해 필요하면 전기안전공사와의 협력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최 대표는 "향후 자체 아이템을 발굴해 직접 제조하는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며 "올해 베트남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송세준 기자 21ssj@

"변화의 시대 '호시우행'으로 위기 돌파"

중기중앙회, '2018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중기중앙회(회장 박성택)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신중히 대처하는 '호시우행'의 자세를 이어가겠다는 새해 각오를 밝혔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18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올해, 지난해 못지않게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흔들리지 않는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자"고 밝혔다.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는 전국 업종별 중소기업인 대표와 중소기업단체, 정부, 국회 등 대한민국을 이

끌어가는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다짐하고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신년하례의 장으로, 중기중앙회가 매년 1월 주최하고 있다.

박성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변화의 시대, 중소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중기중앙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공정거래 환경 조성, 노동정책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스스로도 스마트 공장 도입을 통해 제조혁신을 이루고 좁은 내수시장을 벗어나 해외로 눈을 돌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춘섭 조달청장 등이 참석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등도 자리를 지켰다.

김병일 기자 kube@



필룩스, CES 2018서 'IoT LED조명 시스템' 선포

상황별 조명연출 조명환경·밝기 제어...성능·경제성 ↑

필룩스가 삼성 전자의 스마트싱스 앱으로 제어가 가능하게 될 IoT LED조명 시스템을 'CES 2018'에서 선보였다.

CES 2018은 미국 600여 소비자 전자산업 종사업체들의 모임인 가전제품제조업협회(CEA)에서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전시회다.

필룩스는 삼성전자 부스 내에 가전제품들과 함께 IoT LED조명 제어 시스템을 전시했다. 향후 삼성전자의 스마트싱스 앱과 연동 예정인 이 제품은 상황에 맞는 조명연출을 통

해 생활공간에서의 조명을 한층 스마트하게 구성했으며 거실, 안방, 공부방 등을 개별로 제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최적의 조명환경과 밝기제어를 통한 절전 등 성능과 경제성을 모두 해결했다.

필룩스의 IoT LED조명 제어 시스템은 스마트싱스 앱을 통해 안드로이드 및 iOS 스마트 디바이스와 연동될 예정이며 특히 스마트싱스 앱은 삼성전자의 AI서비스 '빅스비'와 연동으로 음성인식을 통한 IoT 기기의 제어가 가능해 누구나 쉽게 IoT LED조명을 사용할 수 있게 구성됐

다. IoT LED조명 제어시스템을 일반 매장에 적용하면 주·야간 조명의 밝기, 조명의 색상(색온도) 변경을 통한 시선별, 시간대별 매장분위기 변경 등이 가능해져 다른 매장과의 차별화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스마트 홈을 뛰어넘어 스마트 스푼까지 지원 가능한 신개념 조명이다.

필룩스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필룩스의 뛰어난 조명제어 기술을 홍보함은 물론 사물인터넷 조명분야의 대표주자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및 상품개발을 지속시켜 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선두 조명 기업으로의 위치를 공고히 해 스마트 홈 조명사업 진출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승교 기자 kimsk@